

## 영상 스크립트

안녕하세요. 서주원입니다. 저는 현재 한국에서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의 조합원인 서주원입니다.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는 한국에서 협동조합의 붐이 일어나던 2014년 설립되었습니다.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로 내일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립되었고, '청년협동조합연합회'의 회원이기도 합니다.

제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이야기는 2016년부터 시작됩니다. 큰 수술을 겪은 이후, 수술의 흔적은 협력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대한 미래를 꿈꾸게 하였습니다. 서로에게 등을 기댈 수 있는 공동체, 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증을 가지고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스터디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

스터디를 진행하며, 저는 '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'의 조합원 사이에서 신뢰, 협력의 관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, 이후 운이 좋게도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의 조합원으로서 일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저는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의 대외협력 부서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청년, 청년 협동조합들과 만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. 연대의 경험은 협동조합에서 계속 일하고자 하는 다짐과 협동조합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의지를 굳게 만들어주었습니다.

협동조합의 연대의 정신은 제가 느꼈던 것처럼,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일깨워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. 모든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경쟁이 최선이라는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 청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.

저와 우리의 협동조합 이야기가, 청년들에게 협동조합의 가치를 알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12월에 열리는 세계협동조합대회에서 청년 협동조합인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서울에서 뵙게요!